

2018 년 2 월 18 일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경외하는 사람들”(히 6:13-20)

<도입>

성도가 경외심을 갖게 하는 기본, 즉 진수는 무엇일까요? 경외하는 삶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1] 경외하는 삶의 여정의 진수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으면 두 가지 경이로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 (1) 예수님 인격과 삶의 방식을 따르며 자기가 깊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치유와 회복을 바라게 됩니다. 또
- (2) 여전히 죄의 탄력이 남아 있는 가운데에서도 계속 찾아오셔서 장차 주실 축복을 소망하게 하시는 주님의 집념을 만나게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 아니라 영광스런 자녀에게 내리실 유업과 상의 부요함을 쟁취하도록 승리하라는 믿음의 싸움을 격려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열정을 만나신 적이 있나요? 선한 싸움의 동기부여가 있으려면 주님과 깊은 만남이 열려야 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 나의 고통과 아픔과 약함을 풀어주시는 주님을 만나면 주를 향한 경외심이 새로워지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 자녀가 약해서 종종 병치레 하느라 자기 앞길을 헤쳐 나가지 못할 때 이 가족이 함께 아파하면 그 아픔을 통해 가족은 서로 깊이 통하게 됩니다. 진정한 교제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나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비난 받고, 두렵고, 수치를 느껴 고통스러울 때 위로가 되는 존재는 내 문제를 이래라 저래라 하며 풀어주는 해결사가 아니라 나의 고통을 풀어주는 사람입니다. 나의 상황 안에서 인내와 동기부여를 배우게 해주고 힘이 되게 합니다. 그런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한다면 그와 더욱 가까이 하고 싶고 그의 말에 경청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2] 가난한, 궁핍한, 곤고한, 겸손한, 정직한, 의지하는, 신뢰하는 사람은...**

특히 시편과 선지서에 많이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교통하는 특징을 잘 모르면 어떤 존재를 말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교통하는 관계를 특징으로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삶은 어렵습니다. 가난하거나, 약하거나, 고난과 위기가 닥치거나, 내적 문제, 중독 등 문제가 있는 아픔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에 대해 그 누구를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천국(복음) 선포.

**눅 4:18**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 61:1 인용, 참고 - 시 9:18, 12:5)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 마음을 읽고 알게 된 사람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공한 족장이고,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인정받은 때는 가장 두렵고, 아프고, 번민이 심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의 고통을 함께 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약속을 유업(상속)으로 받습니다(본문 17 절). 그래서 약속의 사람들이 됩니다.

**[3] 하나님의 맹세를 받는 경외자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며 순종할 때 뜻 밖의 황송한 일을 행하시는데 자신의 이름을 거시는 맹세입니다. 약속의 변하지 않음을 보증하시는 행위입니다. 아브라함(본문 13-16 절. 창 22:12), 다윗(시 89:3-4)

사람마다 다양한 시험을 거쳐 이 단계에 이르게 됨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본문 17 절(읽음). 당신 뜻이 변하지 않음을 맹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격려하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이 있는 성도는 자기 아픔을 품어 주신 하나님을 만난 자이며 그의 순종은 의무의 수준을 훨씬 넘어섭니다. 사람이 함께 기뻐하는 것은 몇 주간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아픔을 나누면 평생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깊은 고통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을 잊지 못하고, 하나님도 이들을 잊지 못하십니다.

이 세상에 아픔이 없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친구는 아픔을 통해 새롭게 태어납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요 15:13)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므로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품고 느끼므로 죽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삶의 진수는 아픔은 서로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로 오셔서 나와 세상을 아파하신 주님의 아픔을 다시 느끼고 그분의 약함 속에서 구원의 여명이 열렸음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주님을 안다면 상대의 아픔에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경외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 **맺음.**

21 세기 우리 공동체의 지체가 되어서 이를 수 있는 영광의 자리는 역설적으로 다른 지체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 경외자이며 주님이 맹세로 세우실 자입니다. 모두에게 이 맹세의 축복이 넘쳐나는 구원의 여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 **<나눔의 질문>**

1. 오늘은 성도의 경외심에 대해 좀 더 깊은 성경적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경외자는 주님이 맹세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피조물인 우리에게 큰 축복의 말씀입니다. 나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태도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2. 나의 삶에서 아픔과 질고를 토로하고 있습니까? 나의 약함을 발견하고 진정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아픔을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나의 아픔을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습니까?